



갤러리 지형도

창당동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갤러리의 지형도가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곳이다. 이 지역의 주요 갤러리와 최근 전시 일정을 지도 위에 표기했다.

- | | |
|------------------------|--|
| 2X3 02-547-6213 | : Rising Asia Artists { 2007.12.20.~2008.1.26. } |
| 갤러리 에이스트리 02-512-5259 | : Chen Fei & Luo Hui { 2007.12.7.~2007.12.31. } |
| 갤러리 엠 02-544-8145 | : Shared Boundaries { 2007.11.10.~2007.12.22. } |
| 마이클-숄츠 갤러리 02-512-6470 | : 카트린 캄프만 전 { 2007.12.20.~2008.1.20. } |
| 발여숙 화랑 02-549-7574 | : A Sense of Space { 2007.12.27.~2008.1.12. } |
| 서미앤투스 02-511-7305 | : 케레미 디킨슨 전 { 2007.12.7.~2008.1.4. } |
| 아이엘아트 02-3446-3766 | : High & Dry 박주영 개인전 { 2007.12.13.~2008.1.10. } |
| 아틀리에 에르메스 02-3015-3246 | : 구동희 개인전 { 2008.1.23.~3.16. } |
| 오름 갤러리 02-518-6861 | : 볼프강 탈먼스 전 { 2007.11.16~2008.1.31. } |
| 오페라 갤러리 02-3446-0070 | : 상설전 진행 중 |
| 유아트 갤러리 02-544-8585 | : 상설전 진행 중 |
| 줄리아나 갤러리 02-514-4266 | : 아야코 로카쿠 전 { 2007.12.14.~2008.1.20. } |
| 카이스 갤러리 02-511-0668 | : C Art Caf { 2007.11.30.~2007.12.29. } |

60년대의 현대미술은 비평가에 의해 되고, 큐레이터들에게 평가되고, 몇몇 비교적 적당한 가격으로 팔리는 작품 스트들이 만드는, 마치 가내수공업 같다. 그 시절 경매에서 고가를 차지하거나 후기 인상파 거장의 검증받은 작품에 우선 시큰마다 새로운 최고가 기록 추상 표현주의의 전후 스타일과 미니 팟아트. 현대미술의 세계는 그리니치 지나 러시아 독과철 제벌, 아시아 자 넘쳐나는 범세계적인 일용품 시장이다. 이제 중동의 석유재벌들까지 나오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는 동안 이

GALLERY MAP



행복한 눈물

"이런 만화 따위가 100억이라구?" 리히텐슈타인이 서울에서 당한 수모야말로 올해의 굴욕으로 꼽아 마땅하다. 동시대 팝아트 예술가인 앤디 워홀이 팝스타, 대량 생산되는 상품을 실크스크린으로 표현했다면 리히텐슈타인에게 영감의 원천은 카툰이었다. 소재를 만화에서 이미테이션했을 뿐 아니라, 기법에서도 밝은 원색의 컬러와 뚜렷한 윤곽, 그리고 인쇄 과정에서 생기는 만점까지 의도적으로 넣었음 것도

HAPPY TEARS

INFLATION

18세기 프랑스 회화 같은, 역사적으로 장은 침체된 것이 물론이다. 이런 리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팔리는 데마 프 쿤스처럼 매스미디어에 적합한 스토리가 많은 작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학원을 졸업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기(家) 그리고 유제니오 로페즈 같은 해 수집되고, 젊은 아티스트의 작품에 입하는 일이 난무한다. 미친년 널 뽀 림 값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좋겠다.

Inkblat